평양 죽지사의 새로운 모색

- 張之琬과 金濟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 은 주*

1. 서론
2. 張之琬의 〈平壤竹枝詞〉와 金濟學의 〈次申石北關西樂府百八韻〉
3. 평양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4. 새롭게 발견한 평양 : 평양의 안과 밖
5. 결론

초록: 이 논문은 신광수의 〈관서악부〉 이후에 나온 평양 죽지사의 창작 양상을 논의한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관서악부〉가 나온 뒤 19세기 중반에 張之琬이 〈平壤竹枝詞〉를, 金濟學이 〈次申石北關西樂府百八韻〉을 지으면서 장형의 평양 죽지사가 재등장했다. 장형의 죽지사가 대개 어떤 지역의 전모를 보여준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 두 작가는 모두 평양의 제반 요소들을 포함한 〈관서악부〉를 염두에 두고 최대한 새로운 평양 죽지사의 모습을 띨 수 있도록 노력했을 것이다. 본고는 이들 작가의 주제의식을 따라가면서 이 두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성취와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했다.

이 두 작품 모두 〈관서악부〉를 염두에 두고 지었지만, 장지완은 평양을 가서 직접 본 것을 중심으로, 김제학은 평양에 가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작품을 썼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작품은 평양의 수려한 산수와 경제적 풍요, 번화한 분위기를 모두 가져오고 있지만 신광수의 〈관서악부〉에서 강렬하게 드러난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이미지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장지완은 감영에서 목도한 기생의 현실에 특히 주목하여 이들의 일상적인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담아냈고, 김제학은 평안도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장지완의 〈평양죽지사〉에 평양에 대해 알려진 것과 자신이 실제로 보거나 겪은 것과의 괴리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면, 김제학의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에는 직접 본 평양의 모습은 아니지만 평양의 정보를 집대성한 추가적 정보들이 반영되었고 비판적인 태도가 한층 강해졌다. 이 두 작품은 그런 점에서 모두 평양을 바라보는 당대의 인식 변화를 담게 되었다.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이 두 작품은 각각의 문제의식에 따라 일정한 성취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장형의 후속 죽지사가 가지는 난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관서악부〉는 후속 작품에서도 여전히 전범으로 존재했고, 이들은 평양의 안과 밖에서 각기 분투했으나 전범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다. 평양의 전모를 아우르는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거나 시대가 변화함으로써 이전의 평양 이미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제시하지 않는 한, 죽지사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핵심어 : 19세기, 平壤竹枝詞, 張之琬, 金濟學, 〈平壤竹枝詞〉, 〈次申石北關西樂府百八韻〉

1. 서론

평양을 소재로 한 죽지사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을 꼽으라면 18세기 문인 신광수가 쓴 〈關西樂府〉일 것이다. 7언 4구의 총 108수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작품과 합본한 형태로 여러 필사본이 전하고 있다. 〈관서악부〉의 전파 범위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은 필사본의 수량만이 아니다. 〈관서악부〉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들도 계속 만들어졌다. 일종의 계승작으로 부를 수 있는 후대의 작품들은 서문에서 직접적으로 〈관서악부〉를 언급하거나 '108수'라는 흔하지 않은 형식적 유사성을 통해 연관 관계를 짐작하게 했다. 때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관서악부〉에 나타난 일부 표현을 가져오거나 지방관과 기생, 번화한 분위기 같은 유사한 요소를 차용하여 작품 간의 친연성을 암시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 〈관서악부〉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은 평양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죽지사로 확대될 수 있다.

〈관서악부〉처럼 장형으로 죽지사를 짓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전모를 담게 될 것이다. 신광수의 〈관서악부〉는 평양이라는 공간을 낭만적으로 그렸고 이 시에 등장하는 관찰사인 채제공은 이상적인 지방관으로 형상화되었다. 물론 죽지사의 성격도 갖추고 있다. 평양 곳곳의 장소들이 망라되었고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도 아울렀으므로 후대 문인들이 평양을 소재로 장형의 죽지사를 새로 짓는 일

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관서악부〉를 이어 평양의 죽지사를 짓는다면 어떤 새로운 면모를 담을 수 있을까. 〈관서악부〉를 염두에 둔 후대의 평양 죽지사도 발견할 수 있다. 19세기 전반에 살았던 張之琬(1806~1867 이후)의 〈平壤竹枝詞〉와 金濟學(1791~1860)의 〈次申石北關西樂府百八韻〉은[1] 장형의 평양 죽지사라는 점에서 둘 다 〈관서악부〉를 떠올리게 하지만,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 대비되는 작품이다. 장지완은 1840년대에 평양 및 평안도에 간 적이 있으므로 〈평양죽지사〉는 직접 보고 겪은 평양에 대해 죽지사 형식으로 썼다. 반면 김제학은 평양에 간 적이 없다. 김제학은 〈관서악부〉 원시를 충실하게 읽고 차운시를 지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작품은 18세기 〈관서악부〉를 19세기 문인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또 이 시의 특징을 어떻게 계승하고 변모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곧 이 두 작품은 특정한 개인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독자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평양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관서악부〉를 의식하면서 자신이 본 평양과 같은지 다른지, 만약 달랐다면 어떻게 그 간극을 메울지 고민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평양에 갈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관서악부〉는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독서물이었을 것이고, 시대가 다른 만큼 자신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직접 가서 보고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여러 지식 정보로 평양을 접했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이상 〈관서악부〉를 이어 새로운 죽지사를 짓게 된다면 그 착안점과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19세기 두 문인이 〈관서악부〉라는 전통을 바탕으로 평양 죽지사를 지을 때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변모시켰는지 그 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이 자료의 존재를 알려주신 고전번역원 부유섭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 張之琬의 〈平壤竹枝詞〉와 金濟學의 〈次申石北關西樂府百八韻〉

장지완은 張混의 제자이자 斐然詩社를 결성했던 여항문인이다. 그의 생애는 문집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2] 어떤 계기로 평양 및 다른 평안도 지역을 가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장지완은 1825년(20세)에 율과에 장원급제했다. 『잡과방목』에 따르면 장지완의 관력은 訓導(종9품)과 敎授(종6품)인데, 1849년(44세)에 율학교수가 된 것은 확실하다.[3] 그러나 그전의 관력에 대해서는 문집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서 1840년에 평안도에 갔고 1846년까지 德川, 三登縣 등의 평안도 지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4] 훈도가 되어 평안도에 파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장지완의 『永明寺碑』도 1846년에 쓴 것이다.[5] 〈평양죽지사〉는 제1수의 箋注에 "今道光甲辰"이 있어 1844년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평양죽지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필사본이다. 이 작품은 장지완의 문집 『枕雨堂集』에는 없고 장지완의 생전에 간행한 『斐然箱抄』에 20수가 실려 있다.[6] 이 20수는 〈평양죽지사〉의 일부를 선별한 것이다. 현재 공개된 자료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양죽지사〉는 장서각 소장본이 유일하다.[7] 이 〈평양죽지사〉는 모두 85수로 이루어져 있으나 몇몇 해제에서는 75수로 소개하고 있는데, 장서각 소장본을 영인 출판한 『이조후기여항문학총서』 수록본에서 제작 과정의

---

2) 장지완의 생애는 전수연의 「장지완의 성령론과 시세계」(1994 『동양고전연구』 3, 동양고전학회, 311~344면)가 좀 더 상세하다. 장지완의 교유관계는 강혜선의 「장지완의 성령파적 시문학에 대하여」(1993 『한국한시연구』 1, 한국한시학회, 313~335면) 참조

3) 『승정원일기』 1849년(철종 즉위년) 8월 11일 기사.

4) 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枕雨堂集』 해제의 행력 참조.

5) 「영명사비」 탁본첩(奎15204)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본에 따르면 쓴 시기는 1846년이다.

6) 강혜선(1993)에서 논의한 〈평양죽지사〉는 『비연상초』 수록본이다.

7) 장서각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목록이 2가지로 나오는데 이 둘은 동일하다. 검색 결과가 2가지로 나오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를 누락시켰기 때문이다.[8] 장서각 소장본의 상태도 좋지 않다. 글자를 판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이 일부가 결락된 곳도 있어서 이 작품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9]

특히 箋注는 장서각 소장본 〈평양죽지사〉의 일부만 가져오거나 짧게 요약하였다. 전체 85수에서 20수를 선정한 것도 장서각 소장본과 비교해서 보면 『비연상초』에 수록된 시는 제1수~제3수, 제5수~제6수, 제64수~제65수, 제68수~제73수, 제76수~제81수, 제83수이며 글자도 약간 출입이 있다.[10] 『비연상초』 서문을 1857년에 썼고 이 시기는 장지완이 생존해 있을 때이지만, 이 문집을 편집할 때 장지완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러 수로 이루어진 장형의 죽지사 한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연상초』 수록본은 분명히 어떤 기준 아래 선별한 것일 것이다. 이전에 쓴 작품을 정리하면서 간행을 위해 선별할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무난한 내용이 우선순위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비연상초』에서 대거 제외된 장서각 소장본의 제7수~제63수는 대부분 교방의 기생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편 〈관서악부〉에 차운하여 108수의 시를 쓴 김제학은 성균관 유생으로 있었으나 끝내 출사하지 못한 인물이다. 김제학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어느 정도 밝혀놓았다.[11]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은 김제학의 문집 『龜

8) 임형택 편 『李朝後期閭巷文學叢書』 7(여강출판사, 1991)에 수록된 〈평양죽지사〉를 바탕으로 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같은 해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책에서 누락된 부분은 제47수 후반부에서 제56수 전반부까지이다.

9) 장서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에는 결락된 부분 뒤에 다른 부분이 겹쳐져서 원래 있었던 구절로 혼동하기 쉽다. 결락된 부분이 있는 곳은 제45수에서 제49수까지이다.

10) 『비연상초』에서는 장서각 소장본 제5수의 '影'이 '競'으로, 제70수의 '寥寥'가 '寂寥'로, 제72수의 '舊'가 '漢'으로, 제76수의 '下上'이 '內外'로, 제77수의 '桄櫛'이 '梨花'로, 제79수의 '柄'이 '點'으로 되어 있다.

11) 정용수, 2012 「『낙포도정』의 편찬자와 그 자료적 성격」, 『동양한문학연구』 35, 동양한문학회, 279~301면 참조. 다만 이 논문에서는 김제학이 신광수의 〈탄관산융마〉 차운시를 지었다는 맥락 속에서 "장편의 차운시", "각 구절마다 세세한 주석을 달아 평가하고 구체적 정황까지 밝히고 있다"고 했는데(286~287면) 『龜菴集』에는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만 확인되며 이 작품은 과체시가 아니므로 정확한 서술은 아니다.

菴集』에 실려 있는데,[12] 이 작품의 창작 시기는 불분명하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앞까지는 시대순이고 앞에 '戊午'가 들어간 시제가 나오므로 1858년경에 썼으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실린 작품에는 '辛亥'(1851), '甲寅'(1854), '庚寅'(1830)이 언급되는 등 어느 시점부터 편년순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13] 또 이 시는 김제학이 평양에 가서 지은 것이 아니라 〈관서악부〉에 대한 차운시이므로 김제학의 행적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없으므로 창작 시기를 특정하기가 더욱 어렵다.

김제학의 문집 수록 시에서 눈에 띄는 점은 蔡濟恭의 시에 대한 차운시가 많다는 점이다. 차운시를 짓는다고 해서 모두 경모하는 뜻을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김제학이 채제공을 각별하게 생각했던 점은 사실인 것 같다.[14] 김제학은 〈戲題樊菴詩〉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시와 채제공의 시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채제공은 '현달한 사람[達者]'이고 자신은 '곤궁한 사람[窮人]'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한 뒤 채제공 시의 뛰어난 점에 대해 이렇게 썼다.

두보 시 대신에 번암의 시를 읽으니
천고의 화려한 시 일필휘지했구나.
쏜살같은 선인의 환영이 어른거리고
산을 뽑을 듯한 장수의 웅장한 소리 들린다.
표현은 무심하게 나온 것이 없고
시의 전개는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네.
우연히 번암옹과 취미가 같을 뿐
함부로 글 쓴다고 비웃지 말게.
杜詩不見見樊詩 千古浮華一筆麾

12) 『귀암집』은 국립중앙도서관에 2종이 전하고 있다. 〈한古朝44-가74〉는 총 5책이고, 1책은 科詩 上, 2책은 科詩 下, 3책은 詩 上, 4책은 文 下, 5책은 文 別이다. 〈한古朝46-가456〉은 총 4책이고 동생 金濟性의 서문이 있다. 1~2책은 文 上, 3책은 文 下, 4책은 詩 上이다. 시의 수록 작품은 2종이 모두 동일하며 극히 일부 箋注와 필체의 차이만 있다.

13) 김제성이 문집의 서문을 쓴 시점은 1859년이다. 〈한古朝46-가456〉). 〈한古朝44-가74〉 표지에는 '辛酉(1861)輯成'이라고 쓰여 있다.

14) 채제공의 시에 적지 않은 차운시를 지었다는 것을 당파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김제학이 1855년에 尹憲九를 대신해서 쓴 상소문 「京鄉八路儒生尹憲求等上疏」은 노론 유림의 입장을 대변한 글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정용수, 앞의 논문, 285면 참조.

幻影仙人飛劒處 雄聲壯士拔山時
言言都不無心出 步步皆因有境移
偶與斯翁同氣味 傍觀莫笑妄爲辭[15]

김제학이 채제공에게 어떤 동질감이나 선망을 가졌다면 그것은 채제공이 현세에서 성공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였을 것이다. 김제성은 문집 서문에서 문장이란 도를 싣는 그릇이므로 세상에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제학의 말을 옮긴 뒤에 그런 맥락에서 김제학이 쓴 저술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예컨대 八道의 지방 관제를 압축적으로 쓴 〈海東八詠〉에 대해서는 이 나라에 살면서 읍의 이름이나 지방의 풍속을 알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동생 김제성은 형의 시문에 대해 "그 밖의 다른 저작도 풍자를 담거나 경계하는 뜻을 담았으며 이 모두는 선한 마음을 감발하고 방일한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 쓴 것이므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작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모두는 속세인에게 하는 경계이므로 시인과 유객들이 노년에 부질없이 흥취에 젖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16] 총평을 내렸는데, 이를 통해 김제학이 시문 창작에서 효용성을 우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은 각 수 아래에 신광수의 〈관서악부〉 원시를 제시했고 몇몇 필사본에 수록한 箋注도 일부 가져왔다. 매우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쓴 시의 내용을 설명하는 전주가 추가된 경우도 있다. 사실 108수라는 긴 시는 짓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시처럼 원시의 운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형식적 제약이 추가된 것이고 이 시처럼 뒤에 원시를 함께 제시한다면 쓰는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원시와는 다른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과제를 갖게 된 셈이므로 작시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장지완은 〈평양죽지사〉 제82수와 제83수를 지을 때 金黃元이 부벽루에서 쓴 유명한 시구 "장성 한쪽에 물이 넘실거리고, 큰 들 동쪽 끝에 산들이 점점이 있네[長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

15) 金濟學, 『龜菴集』, 〈戲題樊菴詩〉 제3수.

16) 金濟性, 『龜菴集』, 「龜菴集序」. "其他諸作, 或寓諷也, 或箴警也, 皆出於感發其善心·懲創其逸志, 使見之者知作者之意, 則皆爲俗耳之針砭, 而知其非騷人遊客老去渾漫之興也."

山]” 두 구를 그대로 가져왔다. 제82수는 김황원의 일화에 대한 것이고, 제83수는 김황원의 시 구절을 후대에 활용한 것이므로 나름의 차이는 있다. 김황원의 이 두 구는 매우 유명했고 장지완도 이 구절을 매우 각별하게 여겼기 때문에 김황원의 일화로 2수를 편성했겠지만 그래도 작품 전체로 보면 평양 관련 여러 내용을 균형 있게 배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비연상초』에서 원시를 선별할 때 제83수만 수록하면서 제82수와 제83수의 내용을 조합하여 전주를 달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장지완이 시를 지을 당시 정련하고 다듬는 것에 치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집 간행을 위해 편집하면서 이 시 전체를 모두 수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처음부터 108수의 형식을 염두에 둔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은 상대적으로 정제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지완의 〈평양죽지사〉와 김제학의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시의 구성으로 볼 때 뚜렷한 줄기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방 죽지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 될 제반 사항을 어느 정도는 담고 있다는 점이다. 〈평양죽지사〉와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두루 담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양죽지사〉의 경우 장서각 소장본의 총 85수 중에서 20수만 『비연상초』에 실렸는데, 수록된 작품의 내용은 평양의 역사와 번화한 풍경, 평양의 주요 명소에 대한 것이었다. 김제학의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은 평양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확대되었고 〈평양죽지사〉와 마찬가지로 평양의 여러 명소에 대한 언급도 있다. 또 〈관서악부〉는 관찰사의 순력을 다루는 부분에서 평양 외에 평안도 지역 일부를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평안감사가 평양부윤을 겸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평안도 전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이고 평양 역시 평안도의 한 도시이자 평안감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관서악부〉는 평양을 제외한 평안도 지역에 대한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편의 내용이 ‘관서악부’라는 제목과 잘 맞지 않다. 김제학은 〈관서악부〉의 이런 한계를 염두에 두었는지 전편의 내용에서 평안도 지역에 대해 훨씬 더 비중을 많이 할애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두 작품 모두 역점을 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작자의 주제 의식이 드러나는 동시에 평소의 시적 지향과도 연결되어 있다. 장지완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성령론의 계보 속에서 이해하면서 대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솔직한 태도, 자신의 개성이라는 성령론 본연의 특징을 발견했다.[17] 이와 함께 장지완의 시에서 '명실상부'에 예민하다는 지적을 한 연구도 있는데,[18] 이 점은 〈평양죽지사〉를 읽을 때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화류 공간에 비중을 많이 할애했다는 점에 주목한 선행 연구에서는 〈관서악부〉에서는 관찰사가 평양을 주유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풍류 공간으로 교방을 제시했다면 〈평양죽지사〉에서는 장지완이 실제로 보고 겪은 일들을 장면화함으로써 훨씬 더 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9]

한편 김제학이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한 것은 평양의 역사였다. 장지완이 간단하게 단군을 언급하고 지나갔던 것과는 달리 김제학은 평양을 위시한 평안도가 군사적인 요충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제3수~제8수까지 단군에서 기자조선, 고려 말의 위화도 회군 사건을, 제27수~제34수까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의 일을, 제67수~제82수까지 홍경래의 난에 대한 내용을 통해 평양 또는 평안도의 역사를 술회한다. 특히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큰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홍경래의 난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으므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기도 했겠지만, 시의 효용성을 중시했던 김제학으로서는 당시의 치세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적 사건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김제학의 시선은 평양이라는 특정 도시가 아니라 평양을 위시한 평안도로 확대되었고 평안도의 여러 지역에 대해서도 〈관서악부〉나 〈평양죽지사〉에 비해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다.

---

17) 강혜선, 앞의 논문.

18) 전수연, 앞의 논문.

19) 이은주, 2010 「신광수 〈관서악부〉의 대중성과 계승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4~95면 참조.

3. 평양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1) 장지완이 본 평양의 실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양죽지사〉는 제1수에서 단군으로 시작된 유구한 역사와 성벽을 높게 쌓은 도시라는 점만 언급할 뿐, 곧바로 봄날 평양의 아름다운 풍경에 초점을 맞췄다. 대동강에서 평양성을 바라보면 술집 깃발이 두드러진다. 장지완은 평양을 번화한 곳으로 보는 종래의 시선을 그대로 잇고 있다. 이 시의 제6수는 평양이 돈을 물 쓰듯 하게 하는 풍류 공간으로 중국의 소주와 항주에 비견하고, 평양의 전형적인 풍경을 버드나무가 있는 큰 길이 쭉 뻗었고 화려한 곳에서 울리는 노랫소리로 재서술한다.[20] 이러한 풍경 묘사는 정지상의 〈西都〉 시에서 그대로 나온 것으로 장지완은 "서도의 번화한 기상을 4구로 다 그려냈다"고 전주를 달았고 시의 대부분은 평양의 이러한 분위기를 배면에 깔고 있다.[21]

그렇지만 평양의 화려한 분위기는 〈관서악부〉처럼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성격만 띠고 있지는 않다. 평양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현실의 삶은 아름답고 평화롭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 화려한 도시에서 길을 가는 기생들은 뒤따라오는 무뢰배들에게 시달린다(제10수). 청루의 기생들은 미모의 소유자들이겠지만 그들이 진짜 아름다운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싸고 유행을 타는 물품들로 치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제12수~제14수). 머리 장식과 삼단 같은 가채부터 가볍고 산뜻한 비단옷과 유행에 맞는 배자, 각종 장신구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까지 이들의 아름다움은 타고난 얼굴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진귀함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유행에 맞는 새로운 것을 다투는[非爲珍奇爭尺寸, 一時風力鬪時新]"[22] 것

---

20) 〈평양죽지사〉의 제6수는 "銷金鍋子憶蘇杭, 楊柳風微紫陌長. 朱戶綠窓歌吹發, 千秋哽咽鄭知常"이고 정지상의 〈서도〉 시는 "紫陌東風細雨過, 輕塵不動柳絲斜. 綠窓朱戶笙歌咽, 盡是梨園弟子家."이다. 표현이 다를 뿐 풍경 묘사는 매우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21) 전주에서는 정지상의 시를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西都繁華氣像, 四句盡之. 後之作者, 無得闖其藩籬云."

22) 〈평양죽지사〉 제13수의 3, 4구.

이 가능하려면 이들에게 비싼 것들을 사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해주고 이런 물건을 사줄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습이 장지완에게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이다.

서울에서 눈썹 그리는 모습 전해오니
분가루는 뽀얗고 붉은 연지 촉촉하네.
붉게 하얗게 잘 칠했는지 모르겠지만
낭군은 예쁠 때는 특별히 칭찬한다.
京兆猶傳畵額毛 鉛華枯澁紫臙膏
宜紅宜白儂難辨 郞道佳時是別褒 [제14수]

〈평양죽지사〉에는 시 구절을 언급하거나 원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14수 역시 제3구, 제4구는 다른 사람의 시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고, 전주에서 "3, 4구는 죽은 벗 상악 김홍원이 9세 때 꾸며 만든 시이다. 시가 완성되자 7세의 누이가 '시는 이래서는 안 된다. 대장부가 뜻을 세움에 어찌 다른 사람에게 좌우되겠느냐?'고 나무랐는데, 나는 그의 시가 흩어지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 수록하였다"[23]고 밝혔다. 곧 제14수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장한 기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전주의 내용은 평양 기생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 시의 일부 구절은 죽은 친구가 지은 것이며, 나중에 친구의 시가 사라져 전하지 못 할까봐 수록한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崔瑆煥이 장지완의 문집에 쓴 서문(「斐然箱抄序」)에서 장지완이 친구의 시가 전해지지 않을까봐 문집을 간행했다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중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자의식이 두드러졌던 장지완은 기생을 바라보면서 나름의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번화한 평양에 있는 아름다운 기생들을 신광수처럼 관찰사의 시선에서 보지 않았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평양 기생과 나란한 시선으로 이들의 일상적인 삶에 시선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교방에서 기생을 엄선하여 사흘마다 바꾸지만 이것은 영광스럽고 기

23) "三四故友霜嶽金弘遠九歲粧成詩也. 詩成其小妹七歲者駁曰, 詩不可如此, 丈夫立志豈可隨人低昂也. 余惜其零散收之."

쁜 시간만은 아니다. 관찰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뽑히는 것이 교방의 기생들로서는 자랑스럽고 관찰사로서도 이런 기생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방에 소속된 기생의 입장에서는 "꽃 같은 신세 좋다고 하지만, 관청의 사흘은 일 년처럼 길고"(제19수) 긴장되고 불편한 심정으로 그 기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24] 외부인에게 평양 기생은 평양을 상징하는 인물들이고 교방의 기생들이 지방관이 도임하거나 사냥을 나갈 때 군복을 입고 앞장을 선다거나 사신이 오갈 때 줄지어 누각에 오르는 일이 이채롭고 신기한 광경일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는 멋진 모습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더 나아지거나 기생의 처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가는 관료나 사신들을 접대하면서 이들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한편으로 나이가 들어 홀대받게 되는 날들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단옷을 입고 장식품을 달고 밤에 누가 올까 기대하는 마음에 옷을 새로 갈아입으며 조바심도 내기도 하겠지만(제21수),[25]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평양 기생들의 상황도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

무예는 한 몸의 생사와 관련된 것
어린아이가 칼을 놀리며 영산회상을 배우네.
알아야 한다. 나이 들고 예쁘지 않은 사람은
난간 뒤에서 졸기만 하다가 돌아간다는 것을.
剛道一身生死關 垂髫弄劒學靈山
須看老臉東施子 背着闌干渴睡還 [제24수]

제24수의 전주에는 연회에서 공연이 없는 사람들은 뒤에서 졸다가 가기 때문에 이 말로 늘 경계한다고 했다. 나이가 들거나 예쁘지 않다면 여러모로 홀대를 받게 된다. 때로는 포구락 같은 공연에서 공을 못 넣어 그 예쁜 얼굴에 묵점이 찍히기도 한다. 평양이라는 곳에서는 자라서 군졸밖에 더 할 것이 없는 남자보다는 더

24) "棠軒分直等仙居, 誰是班頭女校書. 縱道花叢身分好, 公門三日一年如."
25) "軟綃方勝趂西暉, 莫是新人近夜歸. 却怕裏情人覷得, 忽忽門外告更衣."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제29수), 설사 돈을 번다고 해도 기생 어미에게 뺏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쩌면 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결말은 늙은 남자에게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나중에 호강하기를 기다리거나(제44수), 아니면 재빨리 괜찮은 남자를 골라 아이를 가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삼월 봄바람에 두구꽃 피니
천금같이 귀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술잔 올리네.
사람들은 시절이 좋아졌다 하지만
다투어 나뭇가지에서 열매 맺은 것인걸.
三月東風荳蔻開 千金珍重謝親杯
傍人但道韶光好 爭及枝頭結子來 [제43수]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번화한 평양의 곳곳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 어느 곳에서는 젊은 도련님들이 도박판을 벌이고(제58수)[26] 시골의 훈장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위풍당당하게 틀리게 가르치고 있으며 기자의 유적이 있는 외성의 사족들은 학문적 교양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리바리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렇지만 장지완이 평양에서 남루하거나 들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이곳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 시대는 사자탈 연기 좀 잘했다고 거저 관직을 주는 일도 없는 태평성대인 것은 분명하다(제28수).[27]

맑은 시대라 사방에 연기가 멈췄으니
태평성세 오백 년을 살아왔네.
사신이 근래에 날마다 살피는데
오랑캐는 감히 강변에서 사냥 안 하네.
時淸四野息狼烟 生老昇平五百年
星騎近來爲日謀 游胡不敢獵江邊 [제84수]

장지완은 지금 이 시대가 태평성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광수의 〈관서악부〉

26) "銀燭煌煌屋四隅, 么紅雙白任呼盧. 誰家年少錢如水, 相逐江牌馬弔徒."
27) "房中堂下迭韶咸, 烏帽工師茜子衫. 三十年來獅子脚, 淸時不用費官銜."

속 세계처럼 평양이 마냥 아름답게만 그려지지 않는 것은 현실은 그렇게 단순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안감사로 간 친구 채제공에 대한 일종의 덕담이자 옛 추억을 낭만적으로 회고하는 신광수가 평양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관념화했던 것과는 달리, 장지완은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평양의 진짜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평양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풍경들로 재구성되었다. 그래서 〈평양죽지사〉에는 직접 가서 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내밀하고도 구체적인 정경들이 묘사되어 있다. 번화한 평양이라는 공간은 아름답고 화려한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무뢰배와 기생과 도박을 벌이는 도련님들과 잘 알지도 못하는 시골 훈장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평양 기생으로 유명한 교방 또는 술집에서 이들은 비싼 옷과 장신구를 걸치고 담배를 피우고 연회에서 공연도 하지만 동시에 아양을 부리고 낙담을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울기도 하는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장지완은 자신이 직접 본 진짜 평양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고, 그런 점에서 〈평양죽지사〉는 분명히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평양죽지사〉에서 장지완이 비중을 둔 장면은 교방의 기생들이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 '현실의 진짜 평양', 곧 복잡미묘한 현실상황이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궤를 달리하는 모습은 평양 교방 밖으로 충분히 확장되지 못했다. 경험의 진술은 강렬하지만 한편으로는 범위 한정이라는 한계를 가져왔고, 장지완의 문제의식은 좀 더 넓은 영역에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표출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2) 김제학의 평안도 인식

김제학은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에 원시를 첨부하면서 동일한 운자를 사용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나 각 수에서 원시를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제학의 차운시는 신광수의 〈관서악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김제학은 차운시에서 평양 외에 평안도 지역을 대거 포함시켰고, 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도 분명한 편이다. 김제학의 차운시에서는 제1수와 제2수에서 〈관서악부〉와 요충지로서의 평양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곧바로 역사적 사건에 시선을 집중한다. 곧 제

3수~제8수까지 단군에서 기자조선, 고려 말의 위화도 회군, 제27수~제34수까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의 일, 제67수~제82수까지는 홍경래의 난, 이렇게 간헐적으로 근래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끊임없이 떠올린다. 또 그 사이 사이에 평양 또는 평안도 여러 지역에 대해 풍물이나 관련 내용을 삽입하였다. 김제학은 평안도 여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이를 이미 〈海東八詠〉에서 일부 반영하였다. 7언 고시의 8부분으로 구성한 〈해동팔영〉은 8개 부분(8영)을 전국 8도에 대응시켜 지은 것으로, 그 道에 속하는 지역명을 모두 사용해서 지은, 일종의 희작시에 가깝다. 팔영 중 '關西行' 역시 42개의 지역명을 모두 써야 하는 제약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는 지역 자체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쓸 수 있다.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에서 관서 지방의 여러 지명이 등장하는 것도 관련 지식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은 제3수~제8수까지 단군부터 위화도 회군 사건까지 훑고 있는데, 나라의 역사를 조망한 「再造藩邦頌」처럼 분명한 역사 인식 아래 나름대로 평가하는 내용이 특징적이다. 그동안 평양을 소재로 한 시에서 강조한 역사적 사건이 기자 조선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 시는 제8수에서 이미 언급했는데 다시 26수에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위화도 회군을 특별하게 부각시키면서 조선 건국의 당위성과 명에 대한 경모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 평양에 온 군사들 무기 버리고 돌아가니
> 중원엔 새로 건국한 대명의 광채.
> 당시 어리석은 도통사 최영은
> 천추의 시비를 생각하지 못했네.
> 兵到西京棄甲歸 中原新日大明暉
> 當時老憒崔都統 不念千秋有是非 [제26수]

제8수에서처럼 위화도 회군이 조선 건국과 이어지고 조선이 건국된 뒤에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으로 태평시절을 만났다"는[28] 구절은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

28) 제8수 "松京風雨暗西邊, 麗末蒼生載漏船. 新日初回威化島, 東人始見太平年."

한 인식처럼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을 두고 천추의 시비 문제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느낌도 있다. 명에 대한 의리와 충정은 김제학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 쓴 제27수~제34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개 평양을 소재로 한 시에서 임진왜란에 대해 서술한다면 평양성을 수복하려고 했던 치열한 전투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구원군으로 참전한 명나라 장수 李如柏과 駱尙志, 萬世德, 평양서윤으로 있다가 청나라에 잡혀간 洪翼漢, 청북방어사 겸 영변부사였고 친명배청파의 무장이었던 林慶業, 의주 출신으로 임경업 휘하에서 전공을 세운 崔孝一의 행적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 최효일의 여러 행적을 자세하게 썼다. 최효일은 명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중국의 登州로 가서 청나라 황제를 죽일 작정이었지만 여의치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숭정제가 자결하자 빈소 앞에서 단식하다가 목을 매어 죽었는데 이 사건은 최효일이 의주 출신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평양 또는 평안도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소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건이었다.

황제의 빈소가 있는 매산에서 죽었으니
충정과 절개로 보면 명망 있는 가문.
선행에 대한 하늘의 보답은 어긋남이 없으니
지금 사간원 신료가 칠세손이네.
一死煤山奉帝閽 危忠貞節是名門
天於報善元無忒 諫院臣今七世孫 [제34수]

이렇게 보면 김제학은 평양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서사를 최대한 충실하게 시로 재현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관심을 두고 평가한다는 목적의식이 강하다. 제67수~제82수의 홍경래의 난을 서술하는 대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제학은 홍경래의 난 때 평안도 지역의 관리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이때 보여준 행적을 하나하나 평가했다. 선천부사 金益淳이 반란군 세력에 투항했고, 가산군수 鄭著는 이들의 칼에 맞아 죽었으며 정주목사 李近胄는 정주성을 버리고 도망갔고 7명의 義士는

충정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지방관들이 보였던 처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했지만, 의외로 홍경래와 가담자인 李齊初, 洪總角을 맹렬하게 비난하지는 않았다.

한들한들 버드나무 그늘을 드리우려는데
장사들이 서쪽으로 간 때도 꽤 되었네.
외로운 성에서 무엇을 믿었느냐.
이제초와 홍총각 둘 다 사로잡혔네.
依依楊柳欲成陰 將士西征歲月深
問汝孤城何所恃 齊初總角並爲擒 [제78수]

홍경래에 대해서도 '平西大元帥'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나섰다는 내용 정도만 나왔고, 주요 가담자로 정주성에서 저항을 하다가 관군에게 붙잡혀 처형당한 이제초와 홍총각에 대해서도 이들의 말로를 담담하게 서술했을 뿐이다. 이 시에서는 홍경래의 난에 대해 정리하면서 이 일에서 보여준 사람들의 절개와 충성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썼던 것처럼[29] 여러 사건을 통해 역사를 조감하면서 왕조가 교체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순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섭리라고 보았다.[30] 김제학의 관심사는 국가의 변란 그 자체가 아니라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는가였다. 거의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홍경래의 난에서도 관심의 초점은 이 사건에 대처하는 관료들의 행동이었다. 국가에 대한 책무의식은 김제학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주된 준거였는데, 이는 끝내 관리가 되어 경세의식을 펼칠 수 없었던 개인적 불운과도 맞물리는 문제였을 것이다. 이 점은 이 시 전체를 관류하는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의 마지막 3수에서 관료, 특히 평안감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목 역시 앞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관료의 책무의식에 주목했던 김제학의 전반적인 기조라는 맥락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

29) 제81수 "金陵作史有良材, 西事書來石室開. 大節精忠俱炳烺, 千秋不盡劫灰催."

30) 제6수 3, 4구 "柳京自此如郵舍, 舊去新回幾送迎", 제25수 1, 2구 "興亡此地喜兼悲, 三到朝鮮事可知."

시름을 알 길 없는 풍류 태수는
곡식이 많아 날마다 잔치 열고 노네.
낟알 하나 백성 입에 간 적이 있던가.
기생들 선물로 부질없이 흘러가네.
風流太守不知愁 黃白米多日讌遊
一粒何曾民口到 浮雲流水錦纏頭 [제107수]

관서 수령은 돈이 많아서
임기 끝나고 돌아갈 때 비옥한 전답을 산다지.
그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되었나 물으니
웃으며 관청의 세금이라 자랑한다.
關西守令號多錢 瓜滿歸來買沃田
問汝從何能猝富 笑誇官閣一條鞭 [제108수]

이 시에도 부분적으로 평양의 번화한 모습과 기생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은 매우 작다. 김제학이 이 시의 대상을 '관서악부'의 축자적 의미에 맞게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 전체로 확대시킨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는데, 평안도 전체를 관할하는 '평안감사'도 그렇지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나 위화도 회군 같은 사건들, 곧 실제로는 평안도 전 지역에 대한 여러 내용을 고려하면 '평양'으로 한정시켜 설명하는 것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목도한 것들을 시에 담은 장지완과는 달리, 김제학은 시적 대상을 확대시키면서 주로 독서물과 전언 같은 정보들을 통해 평안도라는 세계를 재구성했다. 그러다 보니 제33수에서 최효일의 뒤를 봐준 의주부윤을 獨石 黃赫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黃一皓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31] 명나라에서 온 萬世德은 당시에도 비판을 받았으나 이 시에서는 공정한 인물로 평가하는 등, 지나치게 대명 의리만을 중시해서 편향적인 시각으로 쓴 부분도 있다. 장지완과 마찬가지로 김제학 역시 지금 이 시대가 태평성세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제학은 평안감사의 존재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장지완과는 달리 이전까지 '풍류 태수'로

31) 제33수 "報明孤節不臣淸, 獨石龍灣仗義聲. 百斛贏粮千匹布, 登萊裝送摠兵營."

그려진 평안감사의 태만과 부정을 비판적으로 그려냈는데, 이것은 평안감사를 탐관오리로 인식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다.

4. 새롭게 발견한 평양 : 평양의 안과 밖

신광수의 〈관서악부〉와 비교해 볼 때 장지완의 시적 공간은 평양으로 더 좁혀졌고, 장지완의 시적 공간은 평안도의 여러 지역으로 더 확대되었다. 장지완은 평양을 직접 가서 자신이 체험한 세계를 소재로 한 반면, 김제학은 평양에 가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들은 정보를 통해 재구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지완이 실제로 갔던 지역은 평양만이 아니었다. 그는 평안도의 다른 지역도 갔지만, 평양만을 소재로 해서 〈평양죽지사〉를 썼던 것은 어떤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제학은 시적 대상을 평양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었다. 108수의 차운시를 짓는다면 대상의 범위가 넓을수록 쓰기에는 편할 것이고 또 평양과 관련되었다고 하는 내용들이 실제로는 평안도의 다른 지역에 대한 내용인 경우도 있었으므로 '관서' 지역으로 확대시켜 〈관서악부〉를 짓는 것이 합리적이기도 했다. 그래서 주로 감영이 있던 평양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감사의 순력 장면에서 평안도 지역을 일부 수록했던 〈관서악부〉의 불균형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장지완은 평양만을 다루었고 김제학은 평안도로 확장시켰던 것이다.

달라진 것은 대상의 범위만이 아니었다. 장지완과 김제학은 모두 평양 또는 평안도에 대해 쓰고 있지만, 여기에는 〈관서악부〉에서 강하게 드러났던 이상적인 세계는 없다. 여전히 평양은 아름다운 곳이며, 평양 기생도 명성에 걸맞게 화려한 외양을 자랑하지만 〈관서악부〉에서 이러한 관변 풍류가 긍정될 수 있었던 전제는 평안감사의 善政이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는 평안감사의 존재감은 현저하게 낮아졌고 시에 나타난 세계에는 지방관의 선정을 바탕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평양 기생에 대한 묘사도 차이가 있다. 〈관서악부〉에

서는 연경에서 오는 비싼 물품들을 가지려고 시샘하는 모습은 있지만 대체로는 文才가 있고 상황 판단이 빠른 현명함을 갖추고 있었다. 〈관서악부〉에서 『평양지』의 기생 月飛의 일화를 가져온 것은 새벽이 되어 잔치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무르익은 잔치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센스 있게 응수하는 월비의 말솜씨 때문이었다. 그러나 평안감사나 고위 관료가 아니라면 야담에서 묘사되거나 일반 사람들에게 체감되는 평양 기생은 사람들을 홀려 전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노회한 이미지였고, 장지완과 김제학의 시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부분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혀끝이 붓끝과 날카로움을 다투니
해학은 이제 모두 그리운 일들.
봄바람 부는 산 아래 길 서글피 보노라니
궁궁이가 빗속에 가늘게 두루 돋았네.
舌頭爭似筆頭尖 諧謔今來摠宿嫌
悵望春風山下路 蘼蕪絲遍雨中纖 [〈평양죽지사〉 제52수]

청루에선 날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곳곳마다 낭군 맞으며 눈에 들려고 단장한다.
버들처럼 가는 허리, 배처럼 부드러운 혀에
얼마나 많은 칼을 미소 속에 감춰두었나.
紅樓日日換衣裳 隧處迎郞入眼粧
柳嫩纖腰梨軟舌 幾多刀劍笑中藏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 제40수]

이제 기생들은 위안을 주는 낭만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 공간이 낭만적이거나 이상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것은 장지완과 김제학 모두 평안감사가 아니라 평범한 개인으로 이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들도 있다. 장지완의 시선에는 학당에 와서 과거 공부를 위해 시문을 짓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제60수]도 보이고 江神에게 굿을 지내는 무당과 여기에 돈을 바치며 소원을 비는 촌 아낙네의 형상[제74수]도 들어온다. 무엇보다 감영 안에 있으면서 가까이에서 연회에서 행해지는 레퍼토리를 봤기 때문인지 공연 장면에 대해 여러 수 쓰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검무와 포구락, 선유락, 사자무와 함께

이들이 불렀던 '減字木蘭花'와 '西江曲' 같은 곡명, '相思別曲'과 평양과 해주에서 불리던 곡들이 언급되어 있고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도 들어있다.

김제학의 시는 평양에 대해 알려진 여러 정보들을 조합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곳에서 자주 먹는 羹糝과 餠餤, 여름에 먹는 찬 냉면(제11수)이나 칙사들이 올 때 淫心을 가질까봐 길가에 여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는 내용(제42수), 평안도 지역에 많이 있는 在家僧(제56수), 당시의 거상으로 유명했던 林尙沃에 대한 내용도 있다.

엄청나게 쌓여 있는 돈꿰미와 비단
남북으로 상인들이 얼마나 오갔던가.
온 나라에서 모두 임상옥을 알고 있으니
집 가득히 악기가 날마다 맑게 울린다.
綠銅萬繼錦千堆 北賈南商幾往迴
三國皆知林尙沃 滿堂絲竹日淸哀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 제92수]

천하에 두루 통하는 상평통보
많아서 앞길에도 돈을 뿌리네.
지금도 문관과 무관 적체가 심한데
안 그랬다면 어찌 구성부사가 되었을까.
通天下寶是常平 多則前程擲有聲
積滯如今文蔭武 不然何以得龜城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 제93수]

평양에 직접 간 장지완과 평양에 가지 않았던 김제학은 시에 담은 공간의 범위는 다르지만 18세기 〈관서악부〉와 다른 19세기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관서악부〉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은 같았지만, 장지완은 직접 본 현실에 대해 썼고 김제학은 직접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썼다. 이 두 시의 창작 시점이 대략적으로 15년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모두 19세기 중반기였다. 이곳은 18세기 후반부터 학문에 전념하는 士人들이 증가했고 19세기 초에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지만 장지완은 홍경래의 난 이후의 평양의 사회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는 당시

자신이 직접 본 공간과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썼고 중인이라는 신분을 강하게 의식했기 때문에 연민의 감정에서 교방의 기생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19세기에 개성의 거부 韓在洛이 자신이 만났던 평양 기생들을 추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낭만적으로 묘사한『綠波雜記』의 기조와도 달랐다. 장지완은 평양의 기생들을 관찰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의 여러 모습을 담아냈는데, 이것은 이전의 〈관서악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인식이었다.

김제학은 평양에 대한 외부의 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 19세기에 나온 소설과 설화, 인형극과 탈춤에서 평안감사는 전형적인 탐관오리로 그려져 있으며, 이것은 〈관서악부〉에 그려진 평안감사와 대조적이었고, 좀 더 현실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외부인에게 평양은 중국과 밀무역하면서 갑부가 된 사람들이 많은 풍요로운 곳이었고 그런 만큼 평양 기생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 갈수록 과거 급제자는 많아졌지만 과거 공부에 매진한다고 해서 상무적 기풍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외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평안도는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나 거상 임상옥이 인상적인 곳이었을 것이다. 김제학의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대거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안도에 대한 외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평양에서 평양을 위시한 평안도 지역으로 공간을 확대하면서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번화함을 넘어 훨씬 더 복잡다단한 모습을 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에서 작가의 문제의식이 강하게 드러났다고 해도 이것이 죽지사의 본연의 성격과 부합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대체로 독자는 죽지사를 읽으면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면모와 이미지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신광수의 〈관서악부〉가 어느 정도 호평을 받았던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듣고 있었던 아름답고 부유하고 평양 기생이 유명한 '평양'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구체적인 형태로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관서악부〉에서 그려진 평양의 면면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감과 막연한 인상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채제공이라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며 당시 실제로 관찰사로 부임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채제공이라는 특수한 개인에게만 맞춰진 내용도 아니었다. 〈관서악부〉는 장형의 평양 죽지사

로는 최초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평양의 전모를 다룬 이상 후속 작품이 나오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동일한 지역을 소재로 한 장형 죽지사가 현실적으로 계속 창작되지 않는 이유도 중복을 피할 새로운 변화 요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관서악부〉는 낭만적이라는 일관된 지역 형상화와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보편성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후속작품인 장지완의 〈평양죽지사〉와 김제학의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관서악부〉는 평양의 제반 요소들을 포함시켰으므로 후속 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착안점은 필수가 되었다. 물론 신광수의 〈관서악부〉는 그 나름의 한계도 있었다. 1774년에 이 죽지사를 창작했을 때 평양을 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감이나 현재성은 떨어졌고 '관서악부'라는 이름과는 달리 평안도 지역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다. 장지완의 문제의식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평양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었고, 그 결과 〈평양죽지사〉는 평양의 여러 측면을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평양의 기생에 가장 역점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기생들의 삶의 애환 등의 복잡미묘한 현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이 작품 역시 평양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그려냈다고 볼 수는 없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도시의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장지완은 평양의 아주 일부분만을 새롭게 그려내는 것으로 그쳤고 그렇게 볼 때 평양의 도시 이미지는 〈관서악부〉와 크게 다른 모습도 아니었다.

김제학의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은 평안도 지역을 대거 포함시키면서 '관서악부'라는 제목에 훨씬 더 잘 들어맞게 되었고 외부인의 시점에서 평양과 평안도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새롭다. 죽지사가 성격상 그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인의 시점으로 쓰는 것이지만, 그 지역에 가보지 못한 외부인이 보고 들은 정보만 가지고 쓰게 된다면 분명히 어떤 다른 면모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제학은 어떤 포폄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이런 관점으로 평양을 중심에 둔 평안도의 역사적 사건 및 여러 풍경들을 서술할 수 있었지만, 이 착안점 자체는 한계가 있었다. 여러 지식정보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이 〈관서악부〉 차운시는 관념성이 강하거

나 사건 서술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시각적 형상화가 두드러지지 못했으므로, 죽지사를 읽었을 때 대상이 되는 지역의 형상이 선연하게 떠오르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제학이라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투영된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평양에서 생겨난 달라진 풍경을 전달할 수는 없었으므로 독자의 기대감에도 충실하게 부응하지 못했다. 이 작품은 본질적으로 평양을 소재로 한 장형의 연작시이지, 외부에 있는 독자의 호기심을 채워 줄 '죽지사'라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창작된 이 두 작품은 모두 어떤 고민의 결과물이다. 어떤 지역에 대한 장형의 죽지사가 존재할 때 같은 형태의 죽지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점을 돌파해야 할까. 이 두 작품은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변화를 모색했고 현실성이나 현재성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 후속 작품의 존재는 역으로 보면 기존의 〈관서악부〉가 가지고 있었던 죽지사로서의 한계를 당시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 두 작품은 각각의 문제의식에 따라 일정한 성취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장형의 후속 죽지사가 가지게 되는 난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관서악부〉는 후속 작품에서도 여전히 전범으로 존재했고, 이들은 평양의 안과 밖에서 각기 분투했지만, 죽지사를 읽을 때 당시 독자들이 가질 법한 기대감이나 호기심을 확실하게 채워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장지완의 〈평양죽지사〉와 김제학의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을 대상으로 18세기 문인 신광수가 쓴 〈관서악부〉를 19세기 문인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또 19세기에 나타난 여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관서악부〉를 어떻게 계승하고 변모시켰는지를 논의하였다.

장지완은 평양을 가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김제학은 어떤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평양 죽지사를 썼다. 둘 다 〈관서악부〉의 형식을 차용했지만, 신광수가 강렬하게 보여준 이상적인 공간 이미지는 거의 사라졌다. 평양에는 여전히 기생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그러나 감영에 있었던 장지완이 목도한 기생의 현실은 아름답지 않았다. 전언이나 독서물로 평양을 이해한 김제학도 마찬가지였다. 김제학에게 평양은 산수가 수려하고 번화한 곳이지만 더 이상 낭만적이고 이상화된 곳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이 차운시에 담겨 있다. 그래서 장지완의 〈평양죽지사〉에는 평양에 대해 알려진 것과 자신이 실제로 보거나 겪은 것과의 괴리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면, 김제학의 〈차신석북관서악부백팔운〉에서는 직접 본 평양의 모습은 아니지만 평양의 정보를 집대성한 〈관서악부〉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러 정보들이 반영되었는데, 이 두 작품은 그런 점에서 모두 평양을 바라보는 당대의 인식 변화를 담게 되었다.

논문투고일(2020. 5. 16), 심사일(2020. 5. 26), 게재확정일(2020. 6. 11)

참고문헌

1. 자료

張之琬,『平壤竹枝詞』(장서각 소장본).
張之琬,『斐然箱抄』(규장각 소장본).
金濟學,『龜菴集』(2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 연구논저

강혜선, 1993「장지완의 성령파적 시문학에 대하여」,『한국한시연구』1, 한국한시학회, 313~335면.
이은주, 2010「신광수 〈관서악부〉의 대중성과 계승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수연, 1994「장지완의 성령론과 시세계」,『동양고전연구』3, 동양고전학회, 311~344면.
정용수, 2012「『낙포도정』의 편찬자와 그 자료적 성격」,『동양한문학연구』35, 동양한문학회, 279~301면.

Abstract

A New Poetic Description of Pyongyang/Pyeongan-do

Yi, Eunju *

This paper discusses the creative aspects of Pyongyang zhuzhici after Shin Kwang-Soo's *Gwanseo-akbu*. In the late 18th century, after *Gwanseo-akbu* came out,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Jang Ji-wan wrote *Pyongyangzukjisa* and Kim Je-hak wrote *Bouts-rimés of Gwanseo-akbu*, and the long Pyongyang zhuzhici reappeared. Given the characteristics that long Pyongyang zhuzhici usually shows the whole area of a certain region, both authors would have tried to make the new appearance of Pyongyang zhuzhici which is distinct from *Gwanseo-akbu*, that includes all elements of Pyongyang. As this paper follows the consciousness of the themes of these authors, it attempts to point out the new achievements and meanings of these two works.

Both of these works were written with the *Gwanseo-akbu* in mind, but Jang Ji-wan went to Pyongyang and saw it in person, while Kim Je-hak wrote the work with relevant knowledge information while he was unable to go to Pyongyang. In this regard, these two works bring both Pyongyang's splendid landscape, economic richness, and a thriving atmosphere, but there are few romantic and ideal images that are intensely revealed in Shin Gwang-soo's *Gwanseo-akbu*. Jang Ji-wan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reality of the gisaeng witnessed by Gamyeong, and realistically captured the sadness of their daily lives, and Kim Je-hak focused on historical events by expanding the object to the Pyeongan-do area.

Key words : 19th century, Pyongyang zhuzhici, Jang Jiwan, Kim Jehak, *Pyongyangzukjisa*, *Bouts-rimés of Gwanseo-akbu*

---

* A Lecture-only professor,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